

# 국민의당 혁신위 구성, 재기 모색 나선다

## 이번 주 비대위원 추가 인선

## 외부인사 영입 대선 패인 평가

## 혁신안 마련 시점 전대 전후 이견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철저한 대선평가와 함께 당 혁신 작업에 착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혁신위 구성과 함께 19대 대통령선거 평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선 패배 후 침체한 분위기를 일신하

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기를 모색할 기반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 비대위원을 2~3명 추가로 인선하고 일부 당직 인사를 하면서 혁신위 구성에 대해 논의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신망 있는 인사들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대담하고 전방위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국민 사랑과 지지를 되찾아야 한다”며 “당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더 수준 높은 미래정당을 만들자”고 혁신위의 목

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외부인사들을 혁신위에 참여시킨 뒤 대선평가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혁신위는 당헌·당규의 불합리한 점도 고쳐야 하지만, 실질적인 당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재정립 방안을 우선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새 지도부가 하루빨리 대안정당의 면모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비대위가 혁신안을 조속히 마련해 전당대회 개최에 대비할 것이라는 관측

이 나온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비대위의 대선평가 및 혁신 작업을 놓고 당내 이견이 노출될 경우 지난 23일 당무회에서 의견을 모은 8월 전당대회 개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전대를 7월이나 8월로 잡아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면 국민적 평가가 어떨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며 “혁신안을 마련한 시점에 중지를 모아 전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송기석

## 국민의당, 대변인에 김유정



송기석 실장 김유정 대변인

국민의당은 28일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에 송기석 의원을, 대변인에 김유정 전 선대위 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송 비서실장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4·13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지역구에서 당선, 정치권에 입문한 초선 의원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 경선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18대 국회에서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대선 전 국민의당 경선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도왔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우리 당 잘 오셨어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유승민과 함께하는 신임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흥행 부진 바른정당 전대... ‘유승민 등판론’ 부상

바른정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6·26 당원대표자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를 지낸 유승민 의원 등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대선 직후에도 당 안팎에서 유 의원이 당권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됐으나, 유 의원이 직접 백의종군 의사를 밝히면서 사그라든 바 있다.

하지만 새 지도부 선출 일정이 정해지고 도 ‘컨벤션 효과’는 커녕 대선 막판 미약하나마 탄력을 받았던 당 지지세가 갈수록 주춤거리자 유 의원의 역할론이 강하게 대두하는 모양새다.

대선 과정에서 유 의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청년층 지지율을 토대로 당의 외연은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세를 키워야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비유승민계’에서도 유승민 등판론이 확산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실패할 경우 당의 생사가 걸려있는 만큼 지금은 당의 핵심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선 선대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 있는 한 측근 의원이 유 의원을 두 차례에 걸쳐 독대하고 당권 도전을 설득했으나, 유 의원은 백의종군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아직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대선 과정에서 유 의원의 소통 방식 등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일부 의원들과 당의 투톱 격인 김무성 의원과의 관계를 푸는 점도 숙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유 의원을 제외해도 이미 출마군은 포화 상태다. 김용태·김영우·김세연·이혜운·황영철 의원 등 3선이 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재선의 경우 정운천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들 중 김영우·김용태·황영철·정운천 의원은 김무성의 의원과, 김세연·이혜운 의원은 유승민 의원과 각각 가까운 사이로 분류된다.

일각에선 오세훈·이준석 원외위원장, 남경필 경기지사·원희룡 제주지사 등 원외 인사들도 두루 거론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바른정당 시·도당

## 민생현장 방문 정례화

바른정당 광주·전남 시·도당은 28일 지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생현장 방문을 정례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도당은 지난 26일 시·도당 사무처에서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안 및 봉사활동, 당원배가운동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시·도당은 향후 광주·전남지역에서 따뜻한 개혁보수의 색을 띄울 수 있도록 시·도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행기자 golee@

## 민주당 “박근혜 탄핵 뒤 쓴 35억 밝혀야”

## 특수활동비 1일 5000만원씩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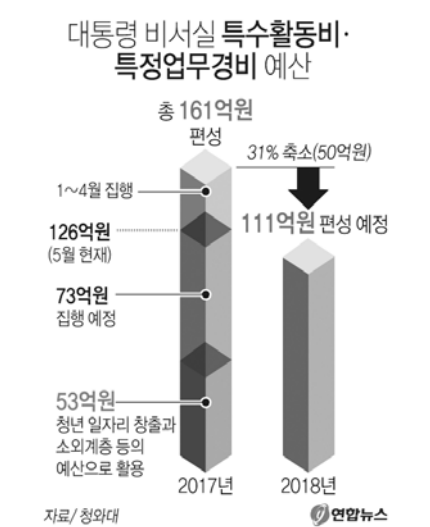
백해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올해 편성된 청와대 특활비·특정업무경비 161억9900만원 중 126억6700만 원이 남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35억원 넘게 집행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해체시킨 특별감찰관실의 1년 예산 24억원을 넘는 큰 돈이다. 직무정지된 대통령과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없던 청와대가 하루 평균 5000만원씩 사용한 것이 상식적인가”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개인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청와대는 조사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문제를 공개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8일 “박 전 대통령이 혼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히고 “그게 문제 있다고 보고한 걸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는 각 수석실 산하 직원들이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혼자 다 썼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5일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절감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편성된 161억원의 예산 중 126억원 (5월 현재)이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올해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 가운데 53억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73억원은 계획대로 집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한국당 단일지도체제 유지...洪 거취 주목

## 오늘 전대준비위·선관위 구성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대 모드로 돌입한다. 한국당은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와 선관위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박맹우 사무총장이 맡는다. 선관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영입한다.

전대는 7월 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후보 등록일은 다음달 21일이다. 전대 방식은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현행 ‘단일직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는 다음달 4일 미국에서 돌아온다. 홍 전 지사는 귀국 이후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홍 전 지사의 ‘아킬레스건’은 출마의 명분이다. 대선후보로 나서 패배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당권에 도전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홍 전 지사가 출마할 경우 마땅한 경

쟁 후보가 현재로서는 없다. 김창식 전 국무총리가 당권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긋는 등 당내 지지기반이 필수적인 전대에 외부인사가 뛰어들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변수는 옛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 기류다. 홍 전 지사가 독주 체제로 당권을 차지할 경우 일부 친박에 대한 ‘인적 청산’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당에서 친박의 색채를 지우는 것은 바른정당과의 재통합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의 정계개편 포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유철, 홍문종 등 과거 친박계로 분류됐던 중진 의원들이 ‘대항마’로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홍 전 지사를 중심으로 한 단일 지도도체제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홍 전 지사가 한국당의 야성(野性)을 회복하고 쇄신 드라이브를 거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지만, 당의 간판으로 그를 내세울 경우 지역적·계층적 확산성에 한계가 뚜렷하고 당내 분란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자산]**

## NPL 투자(부실채권) 실전강좌 모집

▶접수기간 : 2017. 5. 18 ~ 2017. 5. 26

▶자 격 : 본인이 직접 · 간접 투자 하면서 배우실 분

▶수업기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30일 속성코스(실전전문) 2017. 6. 3 ~ 2017. 7. 2

▶인 원 : 선착순 10명

▶비 용 : 100,000원

##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